

정책논단

2012년 제주경제전망과 정책목표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고봉현

201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 완화와 더불어 기저효과의 작용으로 전년대비 다소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안정,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수입물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어 공급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세계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수요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 머리말

최근 미국경제의 회복지연과 남유럽 재정위기로 시작된 유럽경제 위기 등 대외 경제여건 악화로 국내 경제관련 연구기관들은 2012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둔화 내지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는 세계 및 국내경제의 여건 악화와 더불어 FTA 체결 등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경제·산업의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경제분석과 전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주 지역경제에 대한 분석은 대부분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발표하는 지역경제동향과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제주경기종합지수에만 의존하고 있는 수준으로 제주의 경제 및 정책을 일관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연구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난 2년여의 기간에 걸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제주지역 경기예측모형을 이용하여 2012년 제주지역 경제를 전망하고자 한다.

II. 대·내외 경제여건

1. 대외여건

최근 세계경제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유럽 국가들과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성장세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중국·인도·브라질과 같은 신흥국의 성장세는 전년대비 다소 둔화되나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감 확산은 신용등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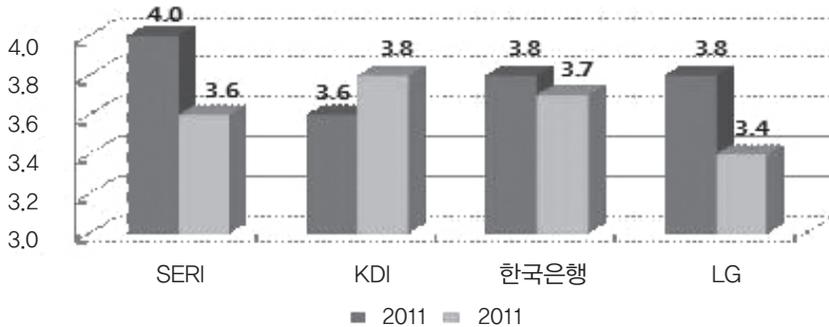
한편,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로 선진국의 원유 수요가 정체하거나 혹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리비아 등 중동 정세 안정으로 원유생산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공급측면의 압력이 완화되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초저금리 유지정책,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는 당분간 약세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유로화 역시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 등으로 유로존 잠재불안 요인으로 인해 소폭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2. 대내여건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유럽 재정위기 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로 국내 주요 경제관련 연구기관들은 국내 경제성장률이 3.4%~3.8%로 전년대비 다소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높여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 및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선

〈그림1〉 경제성장률 추이



진국 및 유럽 국가들의 내수부진이 심화됨으로써 수출 증가폭은 전년대비 다소 둔화되거나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로 정부가 이를 억제하고자 대출규제 및 대출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소비자들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므로 민간소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수출이 전년대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조적으로 관련 산업이 설비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이는 반면, 건설 투자부문에서는 부동산 경기 하락속도가 다소 진정되고 민간부문은 제한적이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단, 공기업 재정악화, 4대강 사업 종료 등 재정여력의 한계로 공공부문의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Ⅲ. 2011년 제주지역 경제 진단

1. 생산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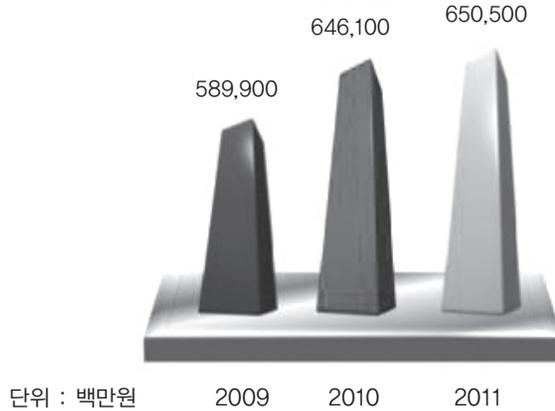
1) 농업

제주지역 산업부문의 가장 대표적인 농업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다소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기상불안, 구제역, 일본 대지진 등으로 인한 농수축산물 가격상승에 의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2011년에는 무·양파·양배추 등의 작물가격이 다소 하락한 반면, 당근·감자·마늘 등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주요 밭작물 조수입은 다소 증가하였고 2010년산 감귤 출하량이 적정 생산량을 보여 가격 호조에 따른 조수입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축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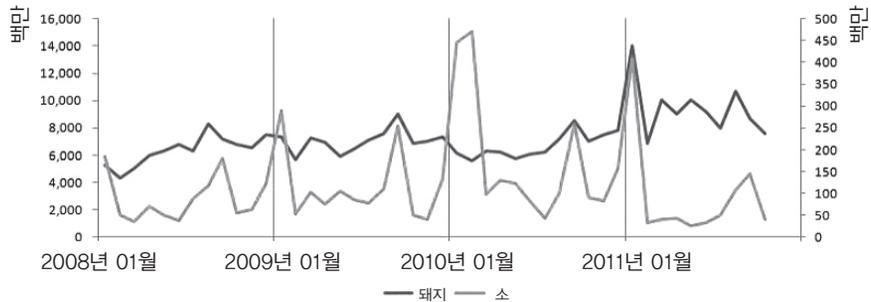
〈그림 2〉 제주지역 농산물 조수입 동향



주 : 농산물공동판매실적 1월~10월까지의 합계임
 자료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 본부

제주지역 축산업의 출하물량은 2010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반면, 양돈 거래량과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전반적인 조수입은 증가하였다. 이는 구제역 발병으로 2011년 1월부터 소·돼지 살처분에 의한 축산물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한 데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그림 3〉 2011년 제주지역 축산업 거래동향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3) 수산업

제주지역 수산업의 전반적인 조수입은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수온 현상으로 인하여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갈치·옥돔 등)이 감소한 데 반해, 고등어·멸치·참조기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였고, 양식넙치의 경우 출하량은 증가한데 반해 소비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가격이 감소함에 따라 조수입이 소폭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제조업

제주지역 제조업은 삼다수 판매와 건설경기 호조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식료품 제조업은 농수축산물의 생산량 감소로 하락한 반면, 음료 제조업은 구제역과 일본 대지진에 따른 영향으로 제주 삼다수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상승하였고,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역시 건설경기 호조에 따른 영향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관광관련 서비스업

제주지역 관광부문은 내·외국인 관광객수 증가에 힘입어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1월까지의 관광객수는 전년대비 14.7%, 관광수입은 32.0% 증가하였는데, 이 중 내국인 관광객은 레저스포츠·휴양 및 관람 목적 개별관광객 증가 영향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하였고, 외국인 관광객은 중국·동남아 관광객 증가 영향으로 31.1% 증가하였다.

이렇게 관광객수가 증가하면서 관광관련 서비스업 역시 2010년에 이어 지속적인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버스 가동대수, 국내·국제선 운항편수, 향만여객, 중문관광단지 내 숙박시설 투숙객 지표 모두 전년대비 4~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제주지역 관광 동향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표 1〉 제주지역 외국인 관광객 동향 (단위 : 명, %)

구 분	2011년	전년대비
관광객수	8,092,851	14.7
내국인	7,138,400	12.8
외국인	954,451	31.1
일본	161,779	-7.9
중국	530,073	35.4
중국본토 외	190,895	69.1
영어권	71,704	48.8
관광수입	4,152,695	32
내국인	2,848,034	21.8
외국인	1,304,661	61.4

주 : 1월~11월까지의 합계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6) 건설업

제주지역 건설업은 민간수주 증가영향으로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건설업관련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대비 36.6% 증가하였고, 건설수주액은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수주액의 경우 2010년 민간부문의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개선흐름이 이어져 2011년에도 민간부문만 90.3% 증가하여 건설경기를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년간 계속된 아파트 등 민간주택 건설로 2012년도에는 미분양 주택 발생으로 인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고용부문

2011년 농수축산업·제조업·건설업 등의 전반적인 산업 호조 영향으로 고용부문도 취업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실업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제주지역 경제활동인구는 294천명, 취업자수는 289천명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률 역시 65.31%로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1.83%로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제주지역 건설업관련 경기지표 동향

(단위 : 천㎡, 억원, %)

구분	건축허가면적	건축착공면적	건설수주액	
			민간	공공
2011년	1,752	1,406	6,445	2,243
전년대비	36.6	4.7	11.4	-37.2

주 : 1월~10월까지의 합계·평균임
 자료: 국토해양부, 한국은행 제주본부

3. 물가부문

2011년 제주지역 소비자물가는 2010년에 이어 상품물가 상승 영향으로 상반기까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면서 4%대 수준을 보였으나, 하반기에 들어 상품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3%대로 다소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품가격의 상승은 기상불안, 구제역, 대지진 등의 영

〈표 3〉 제주지역 경제활동인구 동향

(단위 : 천명, %)

구분	2011년	전년대비
15세이상인구	442.3	1.2
경제활동인구	294.3	2.4
취업자	288.9	2.4
실업자	5.5	-1.8
비경제활동인구	148.1	-1.2
경제활동참가율	66.54	1.2
실업률	1.83	-5.7
고용률	65.31	1.3

주 : 1월~10월까지의 평균임
 자료: 통계청

향으로 전년대비 13.0%로 매우 높게 나타나 상품물가 상승률을 견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비스물가는 최근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보임에 따라 물가상승률은 미미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이 다소 높은 수준에 있어 여전히 부동산 및 공공요금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V. 2012년 제주경제 전망

1. 전제조건 및 시나리오

1) 전제조건

2012년 세계경제는 2011년에 비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 재정위기가 국가부도 사태 및 국제금융시장의 극심한 교란 등 경제위기로 심화되지 않을 것을 전제한 것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은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 등에 힘입어 150만 명에 이르고, 수출은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수출단가가 하락하는 등 대외적 여건 개선으로 2011년 대비 10% 성장(실질환율은 3~5%로 상승, 일본GDP는 2~5%로 성장 전제)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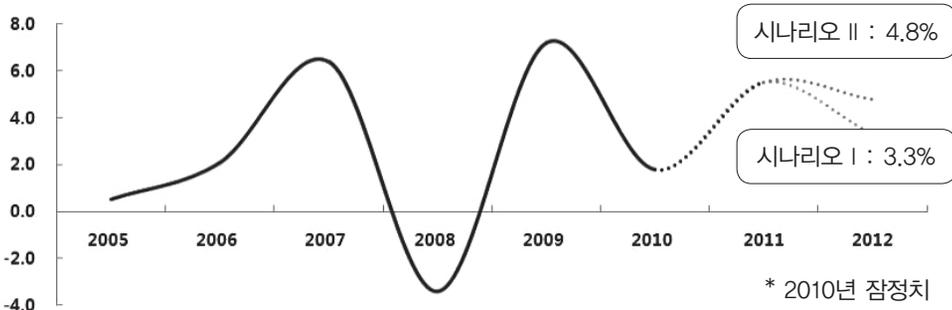
2) 시나리오

2012년 제주지역 경제전망을 위해, 여기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나리오 I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구축한 공급중심의 연간모형인 JDI-EFM11모형(7개 부문(생산, 고용, 임금 및 물가, 금융, 재정, 대외, 기타), 17개 행태방정식, 3개 항등식으로 구성)에 근거한 예측치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시나리오 II는 시나리오 I에 제주도정의 정책의지 반영에 따른 예측치를 산정하였다.

2. 2012년 경제성장률

- 시나리오 I : 3.3% 내외 전망
 -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확대와 기저효과 영향으로 3.3% 내외 전망
- 시나리오 II : 4.8% 내외 전망
 -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의지 반영시 4.8% 내외 전망
 - 외국인 관광객 150만 명 달성 ⇨ 1.5%p 상승
 - 수출 2011년 대비 10% 증가 ⇨ 0.03%p 상승

〈그림4-1〉 2012년 GRDP 경제성장률 전망



3. 부문별 전망

1) 1차산업

2012년 제주지역 1차산업은 기상불안, 구제역,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인한 농수축산물의 가격 상승 영향이 소멸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1년 보다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산 감귤 및 제주산 월동채소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가격 하락에 따른 농산물 조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업은 구제역 영향으로 얻었던 반사이익(출하물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효과)이 소멸되어 전년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수산업의 경우 어선 어업은 해수온 상승에 따른 어획량 증가로 일부 어종(갈치, 옥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양식업치는 양식어장 증가로 출하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가격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에 따른 값싼 농축산물의 국내 소비시장 공세 강화로 감귤(계절관세, 50%→30%)과 축산업(냉장삼겹살 및 기타 돼지고기: 22.5%, 단계별 철폐)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제조업 및 건설업

제주지역 제조업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료품 제조업은 기저효과와 공급물량 수준 회복으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고, 음료 제조업은 삼다수의 해외시장 영역 확대 추진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은 공공부문의 회복세 부진으로 인한 건설경기 호조세 둔화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부문에서는 민간부문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공공부문의 경우 재정여력의 한계로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어 호조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관광

세계자연유산 등재(2007.2),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2010.10),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2011.11) 등에 따른 대내외 이미지 향상 등에 힘입어 1,0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IMF, 9.0%)과 한류 등 긍정적 이미지 확산 영향에 따른 동남아 관광객 증가, 교통수단 증대(직항노선 확충, 크루즈 유치 강화, 노비자입국 확대 등), 엔화 강세 지속 등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유치계획이 잘 이행된다면 2012년 목표치인 외국인 관광객수 15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계 및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와 교통인프라 부족 등은 여전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으며, 특히 지정학적 위험(북한 도발)이 고조될 경우 해외 관광객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4) 고용 및 물가

2012년 제주지역 고용부문은 경제성장률 둔화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폭은 전년대비 다소 축소되어 소폭 상승한 29만 명으로 전망된다. 1차산업 취업자수는 소폭 증가하고, 2차산업 취업자수는 다소 증가하나 비중이 작아 전체 취업자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력 둔화 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 완화와 더불어 기저효과의 작용으로 전년대비 다소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안정,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수입물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어 공급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세계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수요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비스물가, 전세가격 상승 등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근원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중반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5) 수출

2012년 제주지역 수출은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수출단

가가 하락하고, 일본 경제성장률 증가(2011년 -0.5% → 2012년 2.3% 전망, IMF)로 인해 수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10%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여전히 수출 증가율 상승폭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JDI**